

최신 두뇌과학이 밝혀낸 종교의 실체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앤드루 뉴버그 외 지음
이충호 옮김

왜 우리는 항상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존재와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걸까? 왜 우리의 의식은 영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까? 전 시대를 통해 신학자와 철학자, 심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여왔지만, 모순적이거나 증명할 수 없는 답들밖에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를 최신 두뇌과학에 입각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14 세기에 독일에 살았던 수녀 마르가레타 에브너(Margareta Ebner)는 신성한 사순절을 맞이하기 위해 며칠 동안 경건한 침묵과 명상 기도에 잠겨 있었다. 어느 날 밤, 수녀원의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를 하던 마르가레타 수녀는 성가대석에서 놀라운 존재를 인식하고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일기에 기록하였다.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아주 큰 기쁨을 느끼며 침묵에 잠기기 시작했다. 특히 참회 화요일 전날 밤에 나는 큰 은총 속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다가 참회 화요일 밤에 조과(朝課 : 한밤중 또는 이른 새벽의 기도-웁긴이) 후에 성가대석에 혼자 남게 되어 제단 앞에 꿇어앉았는데, 갑자기 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더니,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은총에 둘러싸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 말이 진실임을 증언한다. 나는 내면에서 하느님의 신성한 힘이 나를 붙잡고, 내 인간의 심장이 내게서 꺼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진실로 말하노니(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그와 같은 느낌을 다시는 느낀 적이 없다. 형언할 수 없는 감미로움이 나에게 다가왔고, 마치 내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같았다. 그 때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감미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커다란 열정적인 사랑과 함께 내게 주어졌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신성한 힘이 나에게 계속 불어넣어주신 말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저항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속에 계속 들어 있었다는 말 외에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¹

수백 년 전에 고독한 예배당에 홀로 있었던 마르가레타 수녀는 정말로 예수의 신비스러운 방문을 받았던 것일까? 아니면, 오늘날의 합리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녀는 그 시대의 과학으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감정적 또는 심리학적 불균형의 희생자였을까? 현대 과학적 사고의 보편적인 견해에 따르면, 신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 독일 수녀가 경험한 무아지경의 영적 일체감과 그와 비슷한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의 체험은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 장애나 다른 심리학적 스트레스로 인한 착각 상태이다. 이러한 강렬한 종교적 상태에 대해 의학 연구는 탈진이나 감정적 비탄에서부터 강박적 사고나 심지어는 정신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원인을 제안해왔다. 실제로 프로이트 시대 이래 많은 정신병학자들은, 신비 체험은 실현할 수 없는 현실을 거부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어머니의 사랑의 일체 속에서 느꼈던 어린 시절의 무한한 기쁨을 되찾고자 하는 신경증 환자의 퇴행성 충동이 야기한 환각이라고 믿어왔다.² 마르가레타 수녀가 경험한 신비적 순간에 대한 프로이트 학파의 설명은 다음과 비슷할 것이다. 수녀가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고, 속세의 공허함에서 탈출하기를 기원하면서 예배당에서 열성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녀는 어떻게 하여 어린 시절의 초월적인 기쁨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억과 연결되었다(아마도 발작의 결과로).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 온 이 황홀감에 대해 나중에 그럴듯한 설명을 찾던 그녀는 자신의 정신적 감성이 이끄는 대로 가장 명백해 보이는 설명을 떠올리게 되었다. 즉, 하느님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는.

물론 과학은 그러한 '초자연적' 사건에 대해 자연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견지에서 볼 때,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이 착각이 아닌 다른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과학적 연구는 마르가레타 수녀의 경우처럼 진정한 신비적 접촉은 반드시 감정적 비탄이나 신경증적 착각이나 어떤 병리학적 상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대신에, 그것은 분명히 실재하는 지각에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마음에 의해 생겨날 수도 있다. 신비 체험의 신경생물학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지만, 초월에 관한 마음의 기구를 탐구하기 전에 '신비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신비주의자들의 직관이 전세계의 종교들의 형태를 빚어내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